

LG화학, 폴리실리콘 진출 “포기”

2010년 진출여부 확정 못해 ... 사업전망 낙관적이나 시장 복잡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LG화학의 폴리실리콘(Polysilicone) 사업 진출 결정이 2011년으로 미루어지게 됐다.

LG화학(대표 김반석)은 12월28일 태양광 전지와 반도체의 재료인 폴리실리콘 시장에 진출할지 결정하기 위해 시장 상황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애초 2010년까지 폴리실리콘 시장 진출 여부를 결론짓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LG화학 고위 관계자는 “폴리실리콘 사업의 전망이 낙관적이기는 하지만 현재 시장 상황이 매우 복잡해져 진출 여부를 결정하는데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올해 안으로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까지 폴리실리콘 사업 진출 여부를 결론짓지 못한다고 해서 계획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며 “신중히 시장을 알아보고 있고 여전히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LG화학 김반석 부회장은 2010년 초부터 사업설명회와 기자간담회를 통해 “폴리실리콘 사업에 대기업이 뛰어들고 있는데 우리가 시작하면 1위를 할 수 있을지 검토해 2010년 안으로 결정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화학저널 2010/12/28>